

1:

네 일단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2:

59년생입니다.

1:

그러면 이 대나무 산업 종사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2:

30년에서 40년 됩니다.

1:

그러면 이 대나무에서 대나무 산업에서 맡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2:

저는 채상장 전승 교육사입니다.

1:

그러면 교육 쪽..?

1:

제품 구체 제조하는 단계입니까?

2:

국가무형문화재 제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1:

그러면 일단 그 질문으로 넘어가서 원자재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조달받고 계십니까?

2:

대나무 시장을 통해서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담양에는 대나무 시장이 있어요.
전국에 딱 하나 있습니다. 줄인 말로 대전이라고 합니다.

1:

그러면 그게 직거래 형태입니까? 아니면 중간 도매상 형태입니까?

2:

대전에서는 수집을 해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한테 판매를 하죠.
우리가 이제 직접 산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산에 가서 하면은 힘들잖아요.
산 것이 더 생산성이 있다

1:

직거래 형태인 거죠. 직접 시장에 방문해서?

2:

네 필요한 만큼. 이게 나무는 벌채하고

대나무는 벌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벌죽을 해서 1년 쓸 것을 저장을 저장해서 11월까지 써요.

11월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벌죽을 해서 쓰기 시작해서 3월경에 1년 쓸 것을 이렇고 저는 냉동고에다 보관을 했었습니다.

1:

그러면 네 대나무 원자재 조달 및 관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2: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관 냉동고를 사비를 들어서 했습니다.

1:

그러면 어려움이 딱 겨울철에만 벌죽을 하기 때문에 그 겨울철이 아닌 여름 기간에 대나무를 수입하지 못하는 게 어려움인 거죠.

그래서 창고를 제작하신 거고 그래서 그걸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대나무를 모으시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감사합니다.

1: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

어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입니다. 53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을 어 전통 기법으로 이렇게 전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핸드백이나 응용 작품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앵겔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만들고 있고 전통을 기반으로 그런 것들이 현대적인 것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티슈함도 되겠죠 슈트도 되겠죠.

1:

이런 옷칠과 같은 전통 방식으로 현대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계신 겁니까?

2: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채상 기법으로

1:
채상 기법이요

2:
네 상자 최상장이 뭐 뭐인가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물어보면 압니다.

1:
그게 전통 기법으로 현대적인 제품을 재해석해서

2:
재해석합니다. 콜라보도 합니다.

1:
감사합니다.

1:
그러면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유통 채널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2:
스토어 있고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네이버 스토어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찾아와서 구매를 하고 거기서 보고 구매를 많이 합니다.

1:
여기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여기에 방문

2:
이게 이제 죽녹원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접해서

1:
세가지 방법이 있는거죠 홈페이지, 네이버 스토어, 직접 방문

2: 네

1:
그러면 여기 이렇게 대나무 제품 같은 거에서 마케팅이나 홍보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채널은 무엇입니까?

2:

채널은 아까 말했다시피 세 가지고요. 홍보는 홍보는 국가 무형 문화재 53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홍보는 다 압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시나요?

2:

이제 담양 하면 이제 담양 죽공예 치면은 올라와요.

1:

그런 기사 자료나

2:

예 그리고 이제 블로그 기사 자료 그다음에 공영방송 그래서 이렇게 다큐로 제작하는 거

1:

그러면 제품 판매 후에 고객 지원이나 사후 서비스 같은 거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2:

아 우리 선대가 제가 우리가 3대인데요. 1대 채상장해도 as가 가능하고 2대 채상장이 했어도 as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파손되면 우리 전수자한테 옵니다. 오면은 언제든지 전수자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계속 as는 반복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현재 정부나 지자체의 대나무 산업 관련 정책적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거 중요한 문제야 대나무 하면 바구리 딱 한 마디로 저는 바구리. 싸다. 그러면 대한민국 인건비가 시급 1만 원이죠.

바구리 하나 이렇게 광주리 하나 만든 데 숙련공이 3개 만듭니다.

하루에. 하루에 숙련공이. 그러면 보통 하루라고 하면 8시간인데 8시간에 3개 만들어요.

그러면 한 2만 5천 원 되거든요. 7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편의점 알바 수준도 안 돼요. 그리고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싼 것이 나오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담양산이 좋은지 알지만은 소비자한테 외면을 받고 있어요. 가격이

1:

가격 차이 때문에

2:

3배 4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1: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어 클러스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지원보다도 학문적 그다음에 주민 참여. 주민참여 행정. 그것이 그것이 돼서 이렇게 단지를 만든다든가 어떤 지금 순수 수작업 산업에서 한 단계 높은 AI 쪽의 어떤 고퀄리티로 그 그런 학문이 필요하지 바구리 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반도체 수준으로(?) **채상장07:18** 올려라. 그것은 학자들이 해야 돼요.

장인들하고 행정하고 그다음에 학자들하고 돈만 줘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행정 그것 이 다 합해져야 돼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클러스터란 말 그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그리고 배우자고 해도 기록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에 대해서는 대나무 공예 한 사람들이 기록을 일본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거 새로 배운 사람들이 일본 것을 토대로 합니다.

그가 기록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엄청 잘 돼 있어요.

깜짝 놀라요. 저도 일본 것을 봐요.

대한민국 것은 볼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진짜 부럽더라고요.

기록을 진짜 잘해놔. 디테일하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장인들이 할 겁니까? 행정과 학자들이 해줘야 돼요.

그것은 머니가 안 되니까 안 해 이제 ??? **채상장09:14** 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담양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사양산업에서 바닥이에요.

대나무 해 갖고는 한기영 선생님이 말씀하다시피 옛날에는 죽물 하면 죽이라도 먹었거든요.

지금은 죽도 못 먹어. 그리고 옛날에는 대밭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애들 대학 가르쳤어요.

플라스틱 나오기 전에 그래서 대밭을 생금밭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처음 들어볼 거예요. 생금밭 말 그대로 금밭이야.

금 옛날에는 그렇게 인기가 담양이 좋았어요.

그게 그것을 확실히 짚어야지 되지. 이게 거제도에 맹종죽이 많죠.

맹종죽이 상당히 담양 보다 많아요. 근데 담양을 알아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대나무를 쪼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이에요. 사람이 나무를 꺾어줘야 예술이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이에요. 그러죠. 다음 질문하십시오.

1:

그러면 대나무 산업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체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평가 있어야 평가를 하지 책도 없는데 아니 누가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생계가 돼야지 옛날에는 죽물 하면 죽이라도 먹었는데 죽도 못 먹고 ???채상장11:29
이 말 그대로입니다. 평가할 것이 평가를 해야지

1:

그러면 대나무 산업 관련 정보나 데이터 접근성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2:

일단 책이 없으니까.. 없고 우리는 전통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 다행히 우리는
국가 지정 국가 무형문화재 53호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해 나가는 거지 이것도
안 돼 있으면은 우리 정체성이 사라지고 박물관에서나 보겠죠.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고 그나마. 그것도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들이 이렇고 인기 종목은 돈
잘 번대. 취약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죽지 말라고 산소호흡기에 다 꼽아놓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1:

그러면 대나무 산업 분야에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2:

교육기반도 없습니다. 일단은 죽도 못 먹으니까 누가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대학에서 배
출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력도 없어요.

1:

아예 그냥 처음 교육부터가 없으니까

2:

인력확보 확보란 말이 말이 있는 거 가지고 확보를 할 수가 없고 확보해 봤자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어 최저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이제 좀 심각
하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하셔야지 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뭐라 뭐라 그
럴까 방향을 잘못 타고 나갔다.

일단 이것은 사람과 대나무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지금 논문 쓰시는 것이 이렇
게 사람의 문화와 그 이거 자연하고 이렇게 벽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현장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시는지 ?

2:

그것도 뭣이 뭣여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역량 강화를 하든가 말든가 하재.

1:

그럼 이제 만약에 새로운 그 인력들이 이런 대나무 산업에 대해서 종사하고 싶다고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이런 분들 새로운 신규자들에게는 어떤 교육이나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을까요?

2:

일단은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돼 운동장이 없어 그게 예를 들어서 이걸 배우겠다 그러면 담양도립대 있잖아요.

담양도립대에서 학과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교육을 이렇게 평생 교육과정을 한다든가 과를 만든다든가 그런 운동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없어

1:

전문 교육기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2:

그르지 지금 박물관에서 명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완전히 제가 내가 보기에는 그나마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거는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체계화가 안 돼 있고 좀 뭐 좀 명인들 이렇게 70만 원씩 이렇게 전승비를 주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가서 하는 그런 느낌? 그게 그리고 이제 배운 사람들이 거기서 그 선생님 것 기본을 기본으로 배워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황미경 씨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람은 노력파예요.

논문까지 썼어요. 상당히 노력파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뭐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배운 것은 아니예요.

거기서 입문을 해서 자기 스스로 공부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보고 일본 책 보고 자기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서 논문까지 쓰고 어떤 실력은 명인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1:

그러면 현재 대나무 육림 기술 및 가공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2:

가공 기술 수준에 옛날에 대나무 자리가 있었거든요.

에어컨 나오기 전에 죽석 대나무 자리 그거 담양에서 인기 겁나게 좋았어요.

근데 에어컨이 나온 뒤로는 그것도 사라져 버렸어.

그것도 이제 한 군데 남았어요. 근데 이 이것이 자연 대나무가 자연하고 사람하고 상당히 친숙하거든요.

이제 식품도 개발할 수 있고 공예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숲이 사람한테 좋은 어떤 향기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해 먹을 수 있는 어떤 연구가 연구와 주민과 학자들이 이렇게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된다.

채상장(16:44)비교안으로 순창 고추장장 마을이 대표적인 걸로 있고 그다음에 해일리 마을 해일리 마을 운동장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그럼 그런 것이 필요해요. 순창 고추장 마을도 각자 흩어져 있는 것을 단지화시켜서 관리를 하잖아요.

종균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것이 고추장이라는 게 한국의 전통 장류고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시장성도 있고 세계적으로 또 시장성도 있고 대나무도 그것이 필요하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품 다변화를 위해서 연구 개발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2:

지금 채상이 모태고요. 모태고 다른 전문가들하고 콜라보를 해서 콜라보 가방 이야기했죠.

네 가방은 시몬느하고 했어요. OEM 세계 1위 가방 회사인데 매출 1조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세계 시장 25%에서 30%를 OEM 생산 업체예요.

그거 그거 하고 우리 내가 채상 전문이니까 그거는 가방 전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핸드백을 가죽과 대나무를 핸드백을 만든 거야.

꾸준히 또 노력을 하고

1:

그러면 살짝 연계되는 질문인데 새롭게 개발되거나 시도 중인 제품 분야가 있나요?

2:

개발 중이가 지금 개발은 많이 돼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개발 많이 돼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한 개 제품이 나오면 그놈은 응용하고 응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창출이 된 겁니다.

이게 그것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 개발에 있어서 지원이나 협력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이것은 수가공이기 때문에 기술은 몇십 년 했으니까 손기술은 있거든요.

손기술은 있는데 그것을 손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있어요.

아무래도 인건비를 거기다 넣기 때문에 장인들은 뒤지게 비싸다고 입만 떡떡 벌리는데 그 하루 하루 15만 원 인건비 거기다 집어넣어요.

하루 15만 원 그러면 3일 하면 45만 원 되겠죠

작품 하나 만드는 데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 판로 판로가 상당히 이루어진다(?) **채상장**
20:19

1:

대나무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 공급받는 입장에서

2:

대나무가요 인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냥 베어가라고 해요.
수요가 없어 그러면 그러면 겨울에 벌죽해가지고 얼마든지 겨울에는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놔두면 여름에 썩어요 썩기 때문에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구입하는 데는 애로 사항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보관이 애로 사항이지

1:

구입보다는 이제 그걸 보관하는 거 알겠습니다.

2:

지금 그 대에 갖다 쓰면 아 이놈 갖다 쓰면 될 것 아니냐 근데 이제 물이 올라와요.
물이 축축해요. 저걸로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제품이 안 좋아요.
제품이 안 좋고 그다음에 벌레가 아무래도 영양분을 뿌리에서 막 올라 채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지 그러면 벌레들이 좋아하지 아무래도 이제 일반 나무도 겨울에 벌목을 해서 써요.
알겠습니다.

1:

생산 및 가공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도입 시에 어려운 점 있습니까?

2:

일단은 뭐 시스템화 시킨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겠죠 뭐 아무래도 그게 그리고 어떤 그것을 사적으로 투자해서 한다는 자체는 리스크가 엄청 많고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해서 이게 진짜 시장성이 있고 괜찮겠다 싶으면은 어떤 학자들이 그 문제는 접근을 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한 개인이 그것을 시스템을 만든다 뭘 하나 생산하는데 보통 시스템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아무리 더럽게 잡아도 5천에서 억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자동화 시스템 만든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그 수익을 빼야 되는데 위험성이 많아서 누가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기계도 없고 그것은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어떤 금속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하고, 톱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이제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거 살 수 있잖아요.
대나무 가공 제품은 뭘 만들어서 다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그것은 투자비도 많이 들고 개인이 하기에는 돈 까먹을 일이 많다.

1: 그러면 인력 조달 측면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 하나하나 소리 하고 있네. 끝났어.

1:

그럼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그게 내가 또 이야기해 주면 그 클러스터가 필요하다고 클러스터 구축하고 그런 게 필요해.

1:

그리고 교육기관

2:

그러니까 어떤 교육도 그런 거 대나무 공예에 특화를 시켜서 교육과,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학자, 그다음에 주민, 공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합해서 어떤 운동장을 만들어 주면은 그래 해일 마을 이야기했잖아요.

고추장 마을 이야기했잖아요. 고추장 마을에서 각 집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주거하면서 고추장 담아서 그 유통망을 통해서 팔고 그것도 군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고 순창하면 고추장이잖아요.

순창 아주 잘 하고 있어요.

2:

끝났죠. 네

1:

감사합니다.